

# 광주·전남 2차 추경 2천813억 확보...핵심현안 대거 반영

2호선·호남고속철도 등 숙원사업 포함  
안도걸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결과”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전남 예산 2천81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23일 “2025년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산안에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광주 786억원, 전남 2천27억원 등 총 2천813억원 규모다.

우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1단계·2단계) 건설 사업에 715억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2호선 1단계 사업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 AX 실증랩 조성(20억원), 초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30억원) 등 총 50억원이 반영됐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11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10억원) 등도 추경예산에 포함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힘이 실렸다.

전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조기 준공(2027년→2026년, 1천억원), 신안 압해-하원 해상 교량(360억원), 보성-임성간 철도·도로망 확충(100억원), 광양 공업용수로 개량(52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20억원) 등 지역 숙원사

업 예산 2천2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고환울과 중국의 덩핑 공세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여수국가산단의 산업·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지역 예산이 포함돼 실질적 회복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안도길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민주당 민생 경제회복단 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긴급 정책자금, 고부가 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그 결과, 올해 6월 여수국가산단이 산업·고용 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공주·전남지역 핵심 현안 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대거 반영된 것은 지역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여수 국가산단처럼 산업 붕괴와 고용 위기를 동시에 겪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숨통을 틔울 예산이 반영돼 무엇보다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예산을 한 톨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 반영은 광주(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전남(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와 함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한 치열한 설득과 협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1단계·2단계) 건설 사업에 715억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2호선 1단계 사업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와 2단계 구간이 만나는 복구중흥동 공사 현장. /김애리 기자

“도민 체감 복지 향상” 전남도, 사회복지 공무원 연찬회

전남도가 23~24일 이틀간 목포 신한비치호텔에서 2025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열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행사에는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김해준 전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도·시·군 사회복지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연찬회는 사회복지 분야 유공자와 새내기 공무원 표창, 복지정책 특강, 복지현안 토론과 소통의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고 변화하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양시원기자

## 姜시장 “공공 주도 ‘소버린 AI’ 확보 총력”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설명**

---

**민생·미래투자 4천807억원 편성**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도 순조”**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수도형’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가 순조롭고, AX 실증밸리 사업의 예타 면제도 추진 중”이라며 “광주는 이를 기반으로 ‘제조 AI 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소버린 AI’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금융운용변경계획안 예산설명’에서 “투표율 전국 1위로, 이재명 정부 탄생을 이끈 광주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나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AI 중심도시 광주’ 실현의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광주는 2018년 AI를 선점한 후 국가AI데이터센터와 AI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인프라·기업·인재 구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도시”라며 “이런 준비와 노력의 결과 ‘AI 중

심도시 광주 만들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울산에서 추진된 민간주도형 AID데이터센터와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주도형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AI 2단계 사업인 AX실증밸리 사업 여타 면제 등 광우에 찾아온 기회를 잡기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신속한 3듬کم 출범으로 유예된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고, 이제명 대통령이 G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코스피도 3년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면서 경제 회복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지금은 이제명 정부의 손을 살려내는 시간이자 광주에 광주5년, 그 이상이 한결 결정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천807억원을 편성해 지난 1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상생카드 할인(134억원), AI직접단지 기반 컴퓨팅지원 지원(9억8천만원) 등 민생경제, 미래투자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핀셋 예산'을 편성했다. /별은진 기자

## 강수훈 “지역 청년 유출 심각…정책 전환 절실”

광주시의회 5분발언

지난해 순유출 인구 중 65% ↑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등 제안



각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청년이 직접 예산 편성과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을

특히 강 의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

며 “청년을 위한 한 걸음이 광주의 내일을 결정 짓는 중요한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저출산,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방 광역시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로 정부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시는 28개 부서가 96개 사업, 3천346억원 규모 of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일컬드림사업 채용 연계 강화, 구직활동수당 300만원으로 확대, 광주형 일자리공제 300명 확대 등 청년 정책구현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은진 기자

Panasonic

# 경험하지 못한 절대휴식 REAL PRO MAN1

블랙

베이지

아이보리

## 을사년 6월 파나소닉 안마의자 전 제품 특별 프로모션

최대 200만원 상당 혜택! | 기간 : 6/1 ~ 6/30

상세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MAN1	MAK1	MAJ7	MAF1	MA32	MAC3	MAC9	MA22	MA05

파나소닉프라자  
파나소닉금호월드점

062)522-2000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본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